



지홍 스님
서울아산병원
병원법담 지도법사

지홍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

누구든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곳이 법당

어느 날 오후, 환자복을 입은 초로의 거사님이 법당 문 밖에서 계속 머뭇거렸다. 얼른 법당 밖으로 나갔다. “거사님, 들어오세요.” 두 손을 내밀며 사양하는 거사님의 이유는 이랬다. “병실에서 내려오면서 복전함에 넣을 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손을 저어하며 말씀드렸다. “치료받으시고 수술하실 때 환자분들께 힘이 되라고 있는 법당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세요.” 몇 번을 권해도 거사님의 대답이 한결같다. “부처님 앞에 그렇게 정성 없이 나아가면 부끄럽습니다, 스님.”

보다 못한 다른 환자의 보호자까지 거든다. “그냥 들어오셔서 편하게 기도하세요. 수술 앞두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법당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시나. 어서 들어오세요.” 거사님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다. “임원하고도 병원 안에 법당이 있는 줄 모르고 여기저기 둘러보다 부처님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병실 올라가서 준비해 갖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예의 없이

부처님께 인사드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환자분이 민망하지 않게 같이 웃으면서 말씀드렸다. “우와, 거사님 고집이 대단하시네요. 병원 법당이라서 마음 편하게 그냥 들어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불전 가지고 꼭 다시 오세요. 법당 문은 24시간 열려 놓았으니 아무 때나 거사님 오시고 싶을 때 오셔서 기도하고 가셔도 되고 몸 힘드시면 그냥 앉아서 부처님께 인사만 드리고 가셔도 됩니다.”

가끔씩 연세 많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법당에 들어오기를 주저하거나 법당에 들어서면서도 편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 물어보면 늘 듣는 대답이다. “급하게 오느라 불전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안에 법당이 있는 줄 모르고 왔다가 우연히 들려서 불전이 없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럴 때마다 부처님 계신 곳 문턱이 너무 높았나, 아무나 들어와도 된다는 메시지 보드라도 붙일까하는 생각이 든다.



환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지홍 스님의 모습.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불교의 장점이다. <열반경>의 ‘일체중생 심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나 부처님 제세시의 카스트제도를 부정한 승가 구성을 보더라도 불교적 평등주의가 어떠한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종교 구성원들

의 무차별을 말한다고는 하지만 그 어느 종교에서도 종교상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원리를 말하지 않는다. 불교 경전과 율장의 기록은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평등한 존재이나 사회 안에서 제한받고 있는 개인의 차별에 대한 기록일지도 모르겠다.

현' 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4)

내일은 그대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어린 시절 모친을 따라 사찰에 가 법당 내부 뒷면에 그림으로 그려진 동화이야기를 자주 보았다. 한참 자란 후에 그 내용이 인도의 전설적인 한고조(寒苦鳥)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다. 종강 날, 학생들에게 이 새 이야기를 자주 해주곤 한다.

인도 대실산, 히말라야산맥에 예쁜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새가 사는 곳은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고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낮에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면서 이산 저산을 날아다니며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활약을 펼쳐 지냈다. 그런데 주인공 새는 밤만 되면 잠잘 쉼터(둥지)가 없었다. 결국 친구 집을 기웃거리며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애걸하지만

낮에 함께 놀던 친구들은 냉정히 거절한다. 간혹 하룻밤 재워주는 친구도 있지만 잘 자워주지 않았다. 잠잘 곳을 구하지 못한 밤에는 추위에 오들 오들 떨면서 맹세한다. “오늘 날만 새면 내일은 친구들과 놀지 않고 반드시 내 집을 지어야지.” 그러다 정작 날이 밝으면, 그 맹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노는 일에 정신

늘 하루에 충실하다면 적어도 한고조와 같은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하루살이는 3년 만에 알속에 있다가 깨어나 하루를 사는데, 그 하루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날개짓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 미물도 이러한데 부단한 노력과 정진은 사람으로서의 도리요, 바른 삶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에 애플사 창립자이자 前 CEO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다(나는 점단을 달리는 아이폰을 사용해서 잡스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명상한 명상 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 살아생전 그의 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지금 여러분은 미래를 알 수 없다. 다만 현재와 과거의 사건들만을 연관시켜 볼 수 있을 뿐이다. 현재가 미래와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 등 그 무엇이든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오늘이다. 오늘에 성실하면, 밝은 내일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장밋빛 미래를 원한다면 바로 현재 충실함이고, 현재에 충실함은 바로 찬란한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명심하라.

살다보면 꿈이 바뀔 수 있고, 인생관이 바뀔 수 있다. 삶을 바라보는 각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바뀔 때 바뀌더라도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목표지점은 없다. 오늘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인간은 시간이라는 씨줄과 공간이라는 날줄 속에 존재한다. 현재 순간순간 씨줄과 날줄의 긴밀함이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잠시 휴식의 여유, 명상이라는 쉬는 것. 현 시간과 공간에서 ‘진실한 마음이 저무는구나’라고 한숨 쉬며 다리 뻗고 울었다고 하는데, 나는 해만 저물면 다리 뻗고 쉬고 있다. 예전에는 옛 스승들의 경책 문구를 보면 가슴 한켠에 행하니 지나가는 바람이 나를 힘있게 했는데, 지금은 무디어 있다. 철했던 어린 시절 재밌게 보았던 그림을 어른이 된 지금, 수행의 끈이 늦추어질 때마다 한고조를 떠올린다.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내 집은 내가 지어야지 대신 지어줄 사람이 없다. 공덕이든 수행이든 스승이 대신해줄 수 없음이요, 도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의 경책이 중요하다.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이사)

즐거움만 탐닉해선 도 못깨우쳐
오늘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시간
현재의 충실함이 밝은 미래 연다

팔려 지냈다. 또 밤만 되면 밤새도록 떨면서 ‘내일은 꼭 내 동지를 지어야지’라고 맹세를 거듭하다 어느 날 밤, 결국 새는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다.

세상의 즐거움에만 탐닉해 게을러서 도를 깨치지 못하고 밤만 촉매다가 어영부영 살다간 수행자를 한고조에 비유한 전설이야기다.

옛날 스님들은 황혼 무렵이 되면, “수행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또 하루해가 저무는구나”라고 한숨 쉬며 다리 뻗고 울었다고 하는데, 나는 해만 저물면 다리 뻗고 쉬고 있다. 예전에는 옛 스승들의 경책 문구를 보면 가슴 한켠에 행하니 지나가는 바람이 나를 힘있게 했는데, 지금은 무디어 있다. 철했던 어린 시절 재밌게 보았던 그림을 어른이 된 지금, 수행의 끈이 늦추어질 때마다 한고조를 떠올린다.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내 집은 내가 지어야지 대신 지어줄 사람이 없다. 공덕이든 수행이든 스승이 대신해줄 수 없음이요, 도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의 경책이 중요하다.

내일은 그대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오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

어느 날 갑자기 입이 비뚤어지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비뚤어져 있다면 충격이 클 것이다. 식사 도중에 음식물이 불과 잇몸 사이에 고이거나 흘러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안면신경마비’가 온 것이다. 한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눈빛이 보이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으며 한쪽 볼의 감각이 둔해지고 입에 바람을 넣어도 새어나오고 휘파람이 불어지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 생길 수 있으나 20~50세에 많다.

한의학에서는 ‘와사풍(喎斜風)’이라고 하여 ‘풍(風)’의 범주에 넣는다. 중풍(中風)의 여러 종류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으로 얼굴에만 풍을 맞은 병이다. 풍은 갑작스레 발작하고 변화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며칠 전부터 마비된 쪽의 귓뒤에 있는 튀어나온 뼈 주위로 통증을 느끼는 등 약간의 전구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바로 나타난다. 와사풍은 중풍으로 발전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원인은 주로 찬 기운이다. 찬바람을 맞거나 창문이나 방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든 경우에 잘 생기므로 겨울에 많지만 일

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적지 않다. 여름철에도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자거나 찬 바다에 얼굴을 대고 자거나, 캠핑 등 야외에 나가 찬 곳에서 잔 뒤에 생길 수 있다. 물론 질병을 앓은 뒤나 과로 등으로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잘 생긴다. 서양의학적으로는 면역기능저하, 감기 등이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이염 등 염증이나 바이러스 감염도 원인이다. 그밖에 스트레스를 받아 짜증이나 화를 내는 것도 큰 원인이 된다.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에 열이 많이 생겼거나 오래도록 기분 나쁜 것이 지속된 경우 등에서 유발된다.

음식 문제로도 생길 수 있다. 얼굴에 생기는 병은 거의 위장과 관련이 있다. 한의학에서 우리 몸에 기가 들어다니는 통로를 ‘경락(經絡)’이라고 하는데, 주요한 것이 12개이다. 그 중에 얼굴에 많이 지나가는 경락이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으로 위장의 경락이다. 그러므로 위장 경락의 기가 약한 상태에서 과식하거나 찬 기운을 접하게 되면 와사풍이 잘 생긴다.

안면마비의 치료는 침과 전기침, 적외선 치료와 함께 한약을 복용한다. 얼굴을 따뜻



하게 하고 찬바람이 닿지 않도록 하며 하루에 2~3회 정도 더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한 뒤에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다. 마비되어 완전히 감기지 않는 눈에 안대를 해주어야 먼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결막염과 외상을 예방할 수 있다.

안면마비는 일반적으로 발병 후 48시간 내에 증세가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가 평균 7~10일째부터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하고 6~8주 사이에 완전히 회복된다. 발병한 지 2~3일 이내에 적절한 처치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지만, 효과적인 치료야 늦었거나 초기에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의하지 않

는 경우에 예후가 좋지 못하다. 환자의 20~30%에서 만성적인 후유증이 남는다. 안면신경의 손상 정도가 크고 마비 정도가 심한 경우, 미각과 청각 이상이 동반된 경우, 귀 뒤나 얼굴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 연세가 많은 경우, 임신 중이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이 늦어지고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다.

후유증으로는 웃거나 말할 때 얼굴이 비뚤어지고, 얼굴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입이 돌아가고 눈이 덜 감기는 상태 그대로 남을 수도 있다. 그밖에 예도 눈과 입 주변의 떨림, 눈물 감소, 미각 장애, 청각장애, 청각과민, 이명 등의 후유증이 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 비정상적으로 눈물이 나오는

‘악어의 눈물 증후군’이나, 어떤 근육을 움직이려고 할 때 엉뚱한 근육이 함께 움직여지는 증상 등이 있다.



동국대 분당안면병원

불교복지사업분야 지원대상 모집 공고

대한불교노인불자연합회에서는 불교복지사업분야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합니다

① 모집대상
1. 덕행이 겸비된 스님
2. 중년간부 스님
3. 조직력을 갖춘 간부 불자님
4. 활동력이 있는 재가 불자님
5. 장래 및 상조사업에 관심이 있는 신도

② 활동분야
1. 상 장례, 납골, 수목, 자연장, 안치단 관련 및 후불식 상조사업
2. 실버노인 요양 복지시설 건립 및 추진사업
3. 각 사찰 영불 봉사단
4. 장례복지사(수강지도 후 활동)

③ 모집기간 : 선착순 지원 총원 시 까지

④ 지원특전 : 지원자 중 총괄에 선발된 분은, 본 연합회 이사로서 선임자격 부여

⑤ 지원방법 : 전화 유선상담 및 방문상담 또는 e-mail 상담을 바라며 관심있는 모든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를 열망하며 감사드립니다.

⑥ 연락처 : 1588-6528 / 직접상담 011-772-2177
팩 스 : 02)998-6529
E-mail : nowon1566@hanmail.net

대한불교노인불자연합회
회장 현오, 단장 청안 합장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영풍·반디엔루니스·인터파크·알라딘·에스24에서 구입 가능

<p>◆ 욕임 학습서 ◆</p> <p>· 호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8판본 상·하 권 45만원</p> <p>· 호사육임사주강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p> <p>· 호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이상 3종 5만원</p>	<p>· 호사일상생활강정법 2011정권 제5판본 1권수목 20만원</p> <p>· 호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권 제3판본 1권수목 30만원</p> <p>· 호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목 30만원</p> <p>· 매회역수 2011정권판 수목 20만원</p> <p>· 월령도 2011정권판 수목 20만원</p> <p>· 성명학 2011정권판 수목 20만원</p> <p>· 정통부작보감 2011정권판 수목 5만원</p> <p>· 토정비결수목 5만원</p> <p>· 공해몽 5만원</p> <p>이상 13종</p>
<p>◆ 욕임 활용서 ◆</p> <p>·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권 제5판본 1권 5만원</p> <p>· 욕임재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p> <p>· 욕임재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p> <p>· 욕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p> <p>· 욕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p> <p>·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p> <p>·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권본 1권 5만원</p> <p>· 욕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 8종</p>	<p>◆ 기타 ◆</p> <p>· 호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p> <p>·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p>
<p>◆ 본사 직접판매 고가 욕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p> <p>·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A4, 미세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p> <p>· 욕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p> <p>· 욕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p> <p>· 호사육임연집2011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중장착) 정가500만원</p> <p>· 호사육임강의CD100개 정가 120만원</p> <p>· 한국욕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p>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욕임나라(주)
이미 최고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함
욕임컨텐츠개발전문 - 욕임나라 (주)

인비록(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목차)
1부. 신도神道를 닦다
2부. 죽어서 가는 길
3부. 전생과 현생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5부. 기도·수도 체험기

해강 하순천 지음 / 도서 정가 15,000원
도서출판 대도대환 / 063-643-7285

인터파크 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엔루니스, 알라딘, 에스24 베스트셀러

“이제는 신을 바로 알고 자신의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신은 비물질인 기로 이루어진 생명체이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사람은 자신을 뒤덮은 업과 살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 사람은 죽을 당시 모습으로 사후세계에 1,000년을 살아간다!
-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으로 후손의 몸과 주변에서 살아간다!
- 조상의 병과 업이 후손에게 연결되어 그 고통을 받는다!
- 조상의 병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유전병은 유신병이다!
- 유신병 태아신은 엄마의 뱃속에서 원한을 갖고 살아간다!
- 병의 원인이 되는 신을 해결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 가위질림, 귀신들림 등도 악신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 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인술치유와 신술치유를 같이 해야 한다!

(해사편에서정)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엔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에스24, 부산영광도서, 부산세기서림, 부산고려출판, 인천대현서림, 대구세원출판, 대전보문고, 대전계룡문고, 대전중앙출판, 대전KG북+, 광주총정서림, 광주조현문고, 수원용원문고, 안양중앙문고, 안양대동문고, 안산대동서림, 군포지우문고, 구리동원서적, 부평부평문고, 부천경인문고, 원주동서서관, 춘천경정서적, 제천제일서적, 강릉영동서적, 공주백제출판, 청주일신문고, 청주홍문당, 충주문학사, 구미출판당, 포항포항문고, 김해가야서점, 창원천서적, 진주진주문고, 남해해당당, 전주홍서림, 익산대현서림, 군산군일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영서점, 목포국제서림, 제주탈라도서 등

천부경 6의 비밀-운명과학으로 풀어내는 <新학문> 스님, 종교인 특별만 운영 (10주 완성) *무한리필교육 - 완벽상담시까지

신비의 예지법 강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시개강)

○ 운명, 운세, 인연법을 동시에 해결, 기준상담 모든 분야
○ 평생운, 해운(단기운), 년운(일년신수), 월운 까지
○ 택일 - 결혼, 이사, 행사, 제왕절개 수술일자, 묘이자
○ 궁합 - 운세궁합, 인연궁합, 운명궁합도 함께 풀이
○ 진로상담 - 공부, 학업, 전공, 대학, 직장, 취업상담법
○ 장사 & 사업 - 장소, 인연, 업종, 개업시기, 장사운
○ 체질 & 건강 - 5기체질론에 의한 발병원인, 식이요법까지
○ 개인상담법 -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비의 개인법
○ 개운기도법 - 개운의 비법, 개운행사법, 특수수련법 등

<p><특수 교육강좌></p> <p>◆ 천부경 성명학 & 작명법(10주)</p> <p>◆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3주)</p> <p>◆ 천부경 운세강정법(10주)</p> <p>◆ 천부경 숫자풀이법 인연법(10주)</p> <p>◆ 천부경 진로상담법(정사/사업)</p>	<p>타로카드 강좌 <DVD 발매></p> <p>- 30만원 (2정/set) (타로카드 포함)</p> <p>- 천부경 운명과학회 (하루은행 629-910035-12505)</p> <p>- 각교육원, 카페신청</p>
---	--

☐ 서울·부산교육원 (010)-9171-3001
☐ 대전 교육원 (010)-6476-1021
☐ 대구 교육원 (010)-6251-5776

천부경 6의 비밀 - http://cafe.daum.net/cheonbu6